

가라쿠리 인형

가라쿠리란 실이나 태엽 등의 장치로 움직이는 인형을 가리키며, 에도 시대(1603~1867) 말기에 유행한 오락 중 하나이다. 다카야마 축제에 등장하는 야타이 중에는 정교한 가라쿠리 인형으로 장식한 것들도 있다. 야타이 안에 있는 인형사 팀이 가라쿠리 인형의 움직임을 조종한다. 각 팀은 인형의 세세한 부분을 조종해 인형이 가능한 한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서로의 움직임을 맞춰야 한다.

가라쿠리는 적어도 7세기경부터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보급된 것은 16세기 후반에 서양의 시계 기술이 도입된 후부터이다. 가라쿠리의 메커니즘은 에도 시대의 뛰어난 기술력이 총집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라쿠리 인형이 발전하게 된 데에는 당시 법의 영향이 컸다. 1690년대에 도쿠가와 막부는 검약령(儉約令, 겐야쿠레이)을 제정하여 서민들이 화려한 사치품을 가지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축제용 야타이는 이 법에서 면제되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복잡하게 세공한 가라쿠리 인형 등 축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물품을 발주함으로써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 했다.

1700년대 초기부터 1800년대 후반까지는 다카야마 축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야타이에 1개 이상의 가라쿠리 인형이 있었지만, 화재 등으로 그 대부분이 사라졌다. 현재는 23대의 야타이 중 4대에서만 가라쿠리 인형을 볼 수 있다. 봄 축제용 ‘산바소(三番叟)’, ‘삿쿄타이(石橋台)’, ‘료진타이(龍神台)’와 가을 축제용 ‘호테이타이(布袋台)’에 가라쿠리 인형이 달려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산바소와 삿쿄타이에 사용되었던 가라쿠리 인형을 선보인다.